전주실내체육관 '첫 삽'

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서 건립공사 기공식 갖고 본격 공사 착수

전주시는 29일 덕진구 혁신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창진 전주 KCC 이지스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인근 전주실내체육관을 반세기만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이로써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육상경기장·야구장·실내체육관 등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들을 지어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주시는 29일 덕진구 혁신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창진 전주 KCC 이지스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민들의 체육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는 총 5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지면적 2만1186㎡에 연면적 1만9078㎡, 지하 1층~지상 3층, 수용인원 6000석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다.

시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실내체육관은 농구뿐 아니라 배구와 핸드볼, 배드민턴, 체조 등 각종 스포츠 국내·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전북지역 유일의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유치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온(蘊)경(景)'이라는 주제의 설계안을 선정했으며, 생태도시 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이 각종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제공인 규격에 맞춰 신축 이전되면 전주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프로농구 KCC홈경기는 물론 다양한 국제대회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복지를 누리는 공간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전북대-한국식품연구원, 'K-푸드 세계화' 맞손

K-푸드 소프트파워 창출 · 세계거점도시 추진 업무협약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가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이끌 거점도시로 나아간다.

전주시는 29일 시장실에서 국립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식품분야 국책연구원인 한국식품연구원과 'K-푸드 소프트파워 창출 및 세계거점도시 추진'을 목표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정부가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국내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新)한류(k-culture)' 진흥정책 중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로 식품산업을 지정한 가운데 미식도시 전주와 국립거점대학, 식품분야 국책연구원 3개 기관이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의기투합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협약 체결을 한 3개 기관은 'K-푸드 육성'이라는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가임무중심 의제와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획보고서와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K-푸드 콘텐츠 세계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동노력 및 정보교류 △지역향토 식문화가치의 연구개발, 국책과제 발굴, 유치, 홍보 공동 협력 △인력, 장비, 시설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프트파워 창출·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시를 이끌어가는 핵심가치는 정체성이며,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한정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미식도시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도시로서 전북대학교, 식품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한국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권역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주시 덕진보건소 개소… 마음치유센터 · 재활운동실 · 구강진료센터 등 갖춰

전주 덕진권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덕진보건소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9일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 20) 정문 야외주차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29일 덕진보건소 정문 야외주차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덕진보건소는 전주시 보건소에 이어 시민들의 복지 증대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된 전주의 두 번째 보건소다. 향후 덕진권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덕진보건소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평가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치유센터'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재활운동실' △올바른 구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료를 진행하는 '구강진료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진료실과 접수민원실, 예방접종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보건교육실, 치매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도 마련돼 있다.

덕진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때문에 당분간은 의약 민원 등 일부 업무만 제공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마음치유사업과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등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덕진보건소 개소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덕진권역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덕진권역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위한 덕진보건소를 준공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정식 개소를 미루고 코로나19 백신 덕진접종센터 등으로 활용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과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평등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면서 "새롭게 문을 연 덕진보건소와 기존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승강장 설치

충경로 서문승강장과 서학동예술마을 승강장 등 전주지역 8개 시내버스 승강장이 장애인도 편리하게 버스에 탈 수 있는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개선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중 총 1억40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으로 인한 신규 노선과 재해에 취약한 노선 등에 교통약자 중심의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 승강장은 시내버스 이용량이 많은 △충경로 서문 △서학동 예술마을 △평화코오롱 아파트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으로 장애인 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저상버스 노선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와 ㈜유니온씨티는 지난해 말 체결한 협약에 따라 팔복동 유니온씨티 앞 야전리 승강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거쳐 오는 4월 미세먼지 쉼터형 승강장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 중심의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자전거 단체보험' 1541명 시민 혜택 받아

자전거 사고를 당한 전주시민들이 전주시가 가입한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평균 90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1541명의 시민이 약 14억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 자전거 단체보험은 전주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 일어난 사고나 탑승 중 사고, 도로 통행 중인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시는 자전거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18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자전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꾸준히 온라인과 언론 등 대중매체 활용해 홍보하고, 공동주택과 복지관 등에도 자전거 보험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네팔 자원봉사단 '사랑나눔' 운영

전주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네팔 외국인노동자 및 기타 체류자를 대상으로 네팔 자원봉사단 '사랑나눔'을 운영한다.

이번 네팔 자조모임은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모임으로, 자원봉사단 대상자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지난 27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